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 재정·경상 '적신호'

%고금리시대 위기의 한국號

〈下〉 경제지표

글로벌 경기위축에 수출 감소세 재정·경상 쌍둥이적자 발생 우려 '불안정 지속... 경기회복 미지수'

대한민국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져서다. 자칫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인 '쌍둥이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수출 축소...무역·경상수지 모두 '흐림'

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 이슈노트 '향후 수출 여건 점검 및 경상수지 평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상반기까지 양호했던 증가세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여기에 수입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향후 무역·경상수지 흐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먼저 수출은 주요국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미·중·유럽연합(EU)의 경기위축에 따라다. 향후 우리 수출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 부진 장기화에 경상수지 전망에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고 있다.

/뉴시스

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8월 경상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억9000만달러 감소하면서 30억 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8000만달러)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적자폭도 2020년 4월(-40억2000만달러)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재화수요 급증(운송·무동관), 서비스수요 감소(여행) 등 소비 패턴변화는 그간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일상 회복 과정(재화→서비스)에서 이러한 요인이 점차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무역수지는 이미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0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67억달러 적자를 내면서 7개월째 적자를 이어

갔다. 이는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 환위기 당시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다. 무역적자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용준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경상수지는 수출 둔화세가 확대되고 팬데믹 호조요인(운송, 여행)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변동성이 큰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韓경제, 발목 잡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

인 '쌍둥이적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를 의미한다. 재정적자일 경우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적

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현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9월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는 8일 한은은 '2022년 9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수출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길어지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외국에 나가는 돈이 많아져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외환보유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국제기구들도 경제 전망을 일제히 낮춰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한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1%로 수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무역수지 악화와 경상수지 불안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지금 바닥... 저가매수 기회” 4연속 스텝에도 암호화폐 켕충

연말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상승세 지속, 美 CPI 주목해야'

암호화폐시장이 미 연준의 사상 초유 4연속 자이언트스텝 단행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저가매수와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에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6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만1000달러대로 상승했다. 지난 9월 14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6일 2만달러 회복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4일부터 2만1000달러대에 진입했다. 이더리움 역시 지난달 26일 기점으로 13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상승했다. 주요 코인 상승에 힘입어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 역시 1조6000억달러까지 회복했다.

암호화폐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에도 하락 전환하지 않은 것이다.

이달 파월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긴축하지 못하거나 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하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공격적 긴축정책 유지 기

조를 강조했다.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장에서는 저가매수 기회와 미국 고용보고서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낙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악재를 기회를 바꿔 저가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 포페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DX가 탱킹(Tanking·패배)세를 보이고 있어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주 안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시장 전망치(20만명) 대비 오른 26만 1000명으로 집계되면서 기대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10월 실업률은 9월과 변함없이 3.5%에 머물 것이라던 시장 전망을 뒤엎고 3.7%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이 노동시장 상황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해석해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폭 조절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연준의 긴축 기조에도 암호화폐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선 오는 10월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주제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LIVE 유튜브 생중계(채널: 고용노동부)

※자유롭게 현장 참여도 가능합니다.



일시 2022.11.10(목) 14:00~17:00

장소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1부 | 인사말씀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2부 | 발제

1. 로벤스 보고서의 함의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전형배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산업안전보건법·정책 혁신방안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3부 | 패널토론·질의응답

좌장 : 강성규 | 가천대 보건대학원장
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오순영 | 동의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교수

김재형 | 숭실대 스마트산업안전공학과 교수

김동하 | 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최명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이득호 | 한국노총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사무국장

양옥석 |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행

